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3黨 목소리도 제각각

새누리 “시행령 수정”	더민주 “시행 먼저”	국민의당 “법 개정 고민”
한우 농가 막대한 타격 공무원 등에 대한 식사 대접과 선물 등을 엄격히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행 전까지 정치권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한우 농가 피해 등을 우려해 시행령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법 시행 전이라도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 보완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시행령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법안 자체에 선 물 한도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다 들어간 것인 만큼 의견수렴 기간에 이런 우려를 전달해서 (시행령을) 조정하겠다”면서도 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안이 시행도 안됐는데 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 시행 전 개정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며 새누리당보다 한발 앞서 나갔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현실에서는 법 적용에 따라 생활 상황이 있다”며 “(김영란법 세부 내용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문제점이 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금 더 대화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현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은 그 취지에도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더민주는 김영란법이나 시행	령 수정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더민주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다 지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시행도 전에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을 시행해 보고 시행 이후 드러날 부작용 대해서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위축 우려와 농수축산물의 법적



인사 나누는 김형오-이정현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초선의원 연찬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강연한 뒤 이어진 ‘선배 정치인과의 대화’ 시간에 초대된 이정현 전 최고위원과 인사하고 있다.

朴대통령 협치 시동…13일 여야 원내지도부 만남

1년10개월만에…김영란법·가습기 피해 등 현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여야 3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회동할 예정”이라며 서 “민생경제를 포함해서 국정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폭넓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초청 대상은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오는 11일게

인선 결과가 발표될 신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다.

이와 관련, 한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박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한 뒤 모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이달 말 마무리되는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당부하는 한편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제편된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정부

가 입법 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업 구조조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최근 현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 2014년 7월 10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가 아닌 원내지도부를 초청한 것은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 대표가 4·13 총선 직후 사퇴한 뒤 새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 회동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치(協治)를 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응 제의 문제 등과 관련, 향후 국회가 보완책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기류를 나타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4월26일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말한 데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종인·우상호 “계파 만들지 말라”

더민주 초선 워크숍 의정 교육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당선인들의 국회 적응과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 워크숍에는 초선 57명 가운데 45명이 참석했지만 29명만 자리를 지켜 다소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임재정 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목표와 과제, 의정활동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 전 의장은 “국회의원은 공공의 노예”라며 “종전에는 정치적 싸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통해 싸우는 싸움의 질적 변화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7월 전대 당권경쟁 시작

친박 최경환·이주영·이정현, 비박 정병국·김성태 거론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7월에 개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잠재적 당권주자 후보군의 발돋움도 분주해졌다.

차기 지도부는 4·13 총선 참패 후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치열한 당권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 가장 큰 변수는 친박 핵심인 최경환(4선·경북 경산) 의원의 출마 여부다. 최 의원의 출마 여부는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주영(5선·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의 행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지만 최 의원과 같은 경북권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도 최 의원의 거취에 따라 전대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일각에선 지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유기준 홍문종 의원에게 ‘친박 지속론’을 내세우며 출마 포기를 종용했던 최 의원이 두 달 만에 말을 뒤집고 자신이 전대에 출마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친박계에서는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순천) 의원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홍문종(경기 의정부) 의원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추이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박계 대표적 주자로는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비박계 3선 그룹에서는 김성태(서울 강서)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참패한 서울에서 출근 단선됐고,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쓴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는 점에서 새싹파의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 비박계 의원은 10일 “원내대표 경선은 의원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이번엔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대는 다르다”면서 “심지어 이제는 당원들도 당협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친박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지원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 취소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에 대해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제적 조치한 것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행정조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한번 어른들이 어린 학생에게 죄를 지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제적 처리를 취소하고 명예졸업 같은 명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통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항상 반대로 맡아 왔다. 국회의장을 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았다”며 “입법 활동이 일반적으로 흘러선 안 되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섞여 앉는 방법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현재대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원내 효율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목적임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주)다산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투자 컨설팅, 관리 상담, 상가 토지전문

아파트매도 - 북구 양산동 새한아파트

- ◆ 79㎡ 2층 남향 급매 8,950만원
- ◆ 운암동 건물 매매 : 제1층 금생 대지 165㎡
보증금 1억2천, 월세 290만원, 매매 7억2천

- 토지매도: 광산구 선운지구 5,400㎡ 매매가: 54억원, 자연녹지지역, 8차선도로점, 미관지구

- 광주시내지역 6억, 10억대 : 수익률 좋은 상가건물 매수

- 정읍 소성면 요양시설 매매 : 4.6억 대지 800평, 건평 114평 시비권없음, 주변저수지 조망권 양호

채용공고

부동산,경매 배우면서 일할실 분

NPL배우면서 일할실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주)다산부동산 Tel. 062)682-2288

365shopes@naver.com H.P 010-5180-1945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50번길 55번지 KT몽암빌딩1층(몽암저수지맞은편)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학 문외한이면 자세한 안내를 후원하여 드립니다.